



스무번째 이야기

연못골에 찾아온 사랑

[일상을 넘어① 찾사찾 후기]

아주 오랜 시간을 쌓아온 연동교회는 새문안교회와 함께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교회이다. 어린 시절에 친정집의 증조할머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토대를 쌓게 되셨으며 젊은 시절 결혼 후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 때 선교사님이 직장을 마련해 주셨고, 선교사님 숙소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생활비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이야기 등을 듣고 자랐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정작 게일 선교사님이 연동교회와 선교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BEE에서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인 증조할머님이 충청도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서울로 올라오시고 어떤 목회자님을 만나서 독립운동까지 하게 되셨는지도 너무 궁금했다.



게일 선교사



글쓴이의 외조모(맨 뒷줄 두 번째)



‘찾사찾’를 통해 연동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일 선교사님 박물관을 찾았다.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6·25 전후 분단 등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믿음이 이 땅에 뿌리가 내리기까지 게일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중에 몇 가지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를 적어 본다.

천로역정의 첫 발걸음

한국에 처음 알려주신 천로역정의 삽화를 당시 한국 생활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문화를 잘 반영하여 함께 편찬하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배움의 시작

연동 소학교로 시작해서 정신 여학교, 경신학교로 이어져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가 이 땅에 든든하게 서 있다. 증조할머님께서도 정신 여학교를 다니시며 배움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교사님들이 ‘배움’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재를 양성하셨다. 더디게 가는 듯했지만, 이 길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단단하게 서 있게 된 기초인 듯하다. 이는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게일 선교사님의 유머와 영적 균형감

당시 여름이 되면 성도들이 선교사님께 귀한 음식이라며 보신탕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참 낮은 음식인데도 게일 선교사님은 다 드시고 얼마나 지나고 나서 이런 유머를 남기셨다고 한다. “보신탕을 먹은 후 지나가는 개를 보면 입맛이 다셔지네요.” 어찌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심의 나라로 품고 이 땅의 문화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아파하셨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나는 선교지에서 성도님들이 주는 음식 등을 얼마나 감사하며 받아들였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처음 도착한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최초의 외국인이라고 어딘가에서 보았다. 우리가 거주하는 콜롬비아 리오아차에서 우리 역시 최초의 동양인 선교사이다. 우리 가족은 160년 전 배를 타고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된 소식을 받았던 가족이다.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이 한쪽 가슴에 있기에 다시 동쪽에서 2~3일을 걸려 서쪽인 남미로 가게 된 것이다.



이번 '찾사찾'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글쓴이 정은실 선교사]



남편 박재현 선교사와 함께 콜롬비아로 파송된 6년 차 선교사이다. 콜롬비아에서 유년부 나이의 아이들과 BEE '라구'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학습하는 어린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monotoon [모놀로그 인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인바이블
모노톤 일러스트

나의 자궁에 창조주의 아들이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마리아
누가복음 1:26-38

내 나이가 열다섯, 혼인식은 아홉 달이나 더 남았는데, 다정한 그와 한집에 살게 될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위영청 달이 뜨고 부모님도 깊이 잠드신 한밤중. 언제나처럼 토라를 암송한 뒤 하나님께 기도했다.

정결한 신부, 신실한 어미가 되고픈 꿈을 고백했다.

그는 내게 감당키 어려운 말씀을 전해 주었다. 치너니 내가 임대를 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 될 것이라 한다...!

가브리엘이 떠난 뒤 밤새 이리저리 뒤척인다. 저극히 높으신 분의 선택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지만

집에서 만 대추야자 한 송이를 들고 목공소에 들렀다. 재목을 마를질하던 요셉이 환히 웃으며 반겨 준다. 어릴 때부터 한 집 건너 이웃에 살며 함께 자란 그.

석 달 전, 그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청혼하러 오셨을 때 얼마나 기쁜지 문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발을 굴렀던 그때.

바로 그때, 말할 수 없이 장엄한 빛이 창에 서리며 한 신비한 존재가 홀연히 내 앞에 나타났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품은 지 이미 여섯 달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신다.

꿈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머리가 멍했다.

혼인 전에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 자궁에 창조주의 아들이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 엄청난 비밀을... 누구랑 상의해야 한단 말인가.

2022년 9월 27일 목요일 09:00~10:00
www.monotoon.com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oung

BEE 소식

- 2022년 “일상을 넘어 궂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궂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 22-2 하반기 OBA과정 및 심화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22-2 하반기 OBA(온비아), 심화 과정 | | | | |
|--------------------------|--|-------------------------------|----------------------------|-------------------------------|
| 월 | 화 | 목 | 토 | 주일 |
| 오전 | 온라인 갈라디아서 9/6-10/25 | | | |
| |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9-12/19 | | 온라인 교회사 2 9/17-11/26 | |
| | 대면 서빙고 201호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10/17-1/02 | | | |
| 오후 | 온라인 갈라디아서 9/5-10/31 | 온라인 갈라디아서 9/8-10/27 | | 온라인 갈라디아서 9/4-10/30 |
| |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9-12/19 |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22-12/15 | | 온라인 그리스도인의 삶 9/18-12/18 |
| | 대면 서빙고 302호 성경연구방법 1 9/5-11/21 | | | 온라인 교회론 2 9/18-12/4 |

* 문의 전화 : 02-822-9480 (내선104)

- 9월 17일(토) 6:30! 추석 연휴를 풍성하게 보내시고 다시 대면으로 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기도 자리에 함께해요! 온라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 추석 한가위! 가족과 더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